서울청년센터 마포 · 청년 진로 · 2회차 / 전 3회

AI로 쓰는 내 진로 한 문장

세 번 · **2회차 — 불편에서, 내 일 찾기**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시간 — 돌아보기

CT 메모 · 상위 25% · 한 줄 정의 — 잠깐 돌아봅니다

① CT 메모

② 상위 25%

③ 한 줄 정의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기 — CT 메모란

왜 이름이 CT 메모인가

CCTV처럼 판단 없이 · CT처럼 겉으로 안 보이는 안까지



CCTV

길에 달린 카메라

밖을 찍습니다

판단 없이 — 있는 그대로

+

CT

병원의 단층촬영

안을 찍습니다

겉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CT 메모 = 밖에서 일어난 일 + 그 순간의 신체 반응 — 한 줄

> 밖에서 일어난 일 + 그 순간의 **신체 반응**

지난 시간 돌아보기 — CT 메모 쓰는 법

CT 메모 — 네 칸

하는 일 셋 — 습관 · 판단 미루기 · 방향이 문장으로

언제 적나



짜증 좋음 "어?"

반응한 순간,

느낀 직후 — 미루면 사라진다

무엇을 적나



손 시선 자세 시간

몸이 한 일을

감정만 적고 끝내지 않는다

얼마나



CT · 한 줄

한 줄로

문장이 안 돼도 된다

"짜증났거나, 좋았거나, '어?' 했던 순간에 — 그때 **내 몸이 뭘 했는지**를 15초 안에 한 줄로"

지난 시간 돌아보기 — 모아서 상위 25% 찾기

모은 메모를 — 명령어에 맞춰 AI에 정리 · 분석

할 일은 셋 — 하루 한 줄 · 모아서 던지기 · 맞는 것에 ○



명령어 복사

단톡방 공지 · 홈페이지

AI 채팅창에 붙여넣기

평소 쓰던 것으로

그 밑에 정리 노트 붙여넣기

이번 주 기존 메모 · 상황 의미 + 지난 「누적 요약」

보내기

읽고 — 아닌 건 아니라고

「누적 요약」 저장

다음 주에 같이 붙여넣기 맞는 것엔 ○

> 계속 쌓을수록 더 정확해지고 — **세 개여도 됩니다** · 다만 AI의 답이라 —
> **더 정확해지기 위해선 메모가 쌓일 때마다 다시 넣어 고쳐 갑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장면 — 상위 25% 다섯

메모를 한 번에 — 상위 25% 다섯

제 메모

하루 한 줄씩 — 쌓인 것

백 줄 넘게

나를 제일 잘 드러내는 기록

→ AI →

상위 25%짜리 강점 — 뭐가 겹치나?

1. **현장 관찰력** — 엉킨 상황의 실체를 먼저 읽는다 — 상위 25%
2. **구조로 묶기** — 흩어진 걸 반복되는 틀로 — 상위 25%
3. **수출 실무 10년** — 서류 · 절차 · 이해관계가 얽힌 현장 — 상위 25%
4. **AI를 빨리 내 것으로** — 몇 주 걸릴 정리를 며칠로 — 상위 25%
5. **끝까지 버팀** — 안 풀린 주 다음엔 다시 — 상위 25%

다섯을 겹치면 — 꼬인 상황을 푸는 사람 · 『더 시스템』은 셋, 저는 다섯

"나는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내가 직접 개입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문장으로 — 직무가 나옵니다: **기획 · PD · 컨설턴트**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 한 줄 정의

숙제는 하루 한 줄 — 0개도 정상

예 — 제 한 줄 정의

첫 시간에 만든 것

"나는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내가 직접 개입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한 문장이 오늘 —
회사 이름 · 진로 목록이 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정리 — 방금 본 것

CT 메모	일상적인 관찰 — 밖에서 일어난 일 + 몸의 반응
매주 넣으면	상위 25% 다섯 → 겹치니까 한 줄 정의
결론	한 줄 정의 하나 · 하루 한 줄 메모

핵심은 하나 — 나를 적어 둔 재료

오늘

오늘 — 불편에서 내 일 찾기

CT 메모(일상적인 관찰) → 오늘 불편 메모(그 안에서 내 관심 포인트)

① 순서
② 세 번 중 오늘
③ 결론
④ 손에 남는 것
⑤ 이런 분께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 불편에서 내 일 찾기

오늘의 순서

4개 세션

01 **불편 메모** — 불편이 뭔지 · 왜 모으나
지금 한 줄 적기

02 **불편 ①** — 밖에서 오는 불편 — 「왜 이렇게 됐을까?」
회사(이유)가 보인다 · 거꾸로 읽기

03 **불편 ②** — 내가 느끼는 불편 — 「나라면 어떻게 풀까?」
할 일이 보인다 · 제가 만든 것

04 **여러분 차례** — 쉬고 나서 — 무슨 일 · 어느 회사 → 3~5개
한 곳 — AI로 거꾸로 읽기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그림 — 세 번 동안 할 일

세 번 동안 할 일 — AI로 내 진로 한 문장 쓰기

진로는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 찾아보고, 뜯어보고, 고치는 것

오늘 · 나

찾아보고

CT 메모

내가 언제 살아있는지 적어서
『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

경험 속 공통점을 찾아
'나의 방향 문장' 만들기

→

다음 시간 · 회사

뜯어보고

불편 메모

회사 · 산업이 내린 결정을
밖에서부터 역설계로 읽고
— 결과를 보고 거꾸로

관심 있는 회사를 살펴보고
진로 후보 3~5개로 좁히기

→

마지막 시간 · 길

고칩니다

답 맞춰 보기

직접 · 간접 · 나에게로 — 가서 확인하고
안 맞으면 — 고치는 법까지
— 여러 갈래의 시각으로

실제 업무를 확인하고
지원동기 문장까지 써보기

취업엔 증거 · 진로엔 기준 — 세 번 동안 둘 다 만듭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신청하며 적어 주신 고민 — 세 번에 나눠 답합니다

세 번 동안 — 진로와 취업에서 얻어 가는 것

적어 주신 고민	오늘 · 나 "뭘 할 수 있는지 · 뭐가 맞는지"	다음 시간 · 회사 "어떤 일 · 어떤 회사를 목표로"	마지막 시간 · 길 "자소서 · 포폴 · 면접에서 할 말"
진로	**내 방향 한 문장** "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	**진로 후보 3~5개** 무슨 일 · 어느 회사	**맞는지 확인하는 법** 안 맞으면 — 고치는 법까지
취업	**막힌 이유 — 숫자로** 성격 탓이 아니라 재료 문제	**회사의 속사정 읽기** 뿌리까지 — 면접 질문까지	**확인한 근거로 쓰기** 포트폴리오 · 지원 동기

세 번은 — 내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 불편 하나에 물음 둘

「왜 이렇게 됐을까?」 — 회사(이유)가 보이고 「나라면 어떻게 풀까?」 — 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찾은 것 · 만든 것**부터 — 그다음 여러분 것으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같이 해 볼 것 — 셋

오늘 손에 남는 것 세 가지

셋 다 —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해 봅니다

1



진로 · 취업 후보 3~5개

한 줄에 — 무슨 일 · 어느 회사

2



막연한 불편 — 실제 원인 찾는 법

평소 불편하던 것 · 왜 그런지

3



「이렇게 풀겠다」 한 줄

풀면 — 할 일이 보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진로 · 다시 시작 · 경험 — 그리고 기획력

이런 분께 —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진로



가고 싶은 회사를 —
어떻게 정할지 막막한 분

다시 시작



쉬는 기간이 길어서 —
어떤 일이 맞는지 다시 찾는 분

경험



해 온 일을 —
다음 일로 잇고 싶은 분

불편에서 할 일을 찾는 힘 — 흔히 «기획력»이라고 부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세션 1 파트 1

불편 메모 — 왜 불편인가

불편이 뭔지 · 왜 모으는지 그리고 물음 둘 — 왜? · 나라면?

지금
불편 메모

그다음
불편 ① · 불편 ②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불편이 뭐냐면 — 단순하게는 문제

근데 '문제' 앞에는 — 온갖 수식어가 붙습니다

'문제'라고만 하면 — 끝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는 —



붙이면 →

붙여 보면 —

- 사회적 문제
- 구조적 문제
- 개인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세대 간 문제
- 환경 문제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그중에는 —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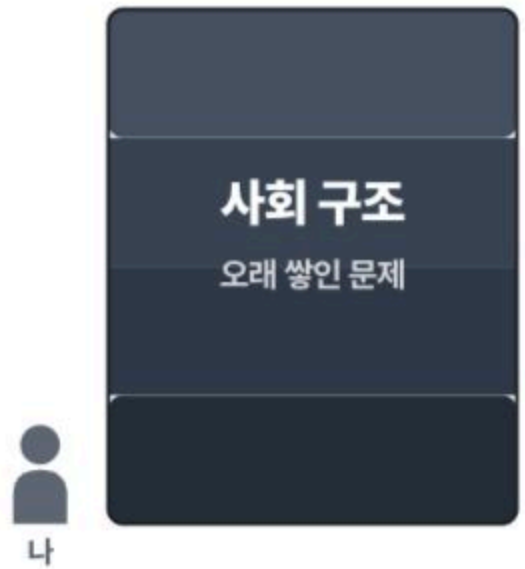
이런 문제는 너무 큽니다 —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으로 오랜 시간 쌓인 것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나 하나로는 바꾸기 어렵고
막연하고 — 너무 커서
골치만 아프다



그래서 →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그럼 — 하나 여쭤볼게요

불편은 그냥 —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불편을 —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은 그냥 — **참아야 할까요?**

아니요 —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1. **에너지를 아끼려는 — 게으른 뇌** (몸무게 2% · 에너지 20%)
   그래서 머리 쓰기를 피하고 — 매일 하는 건 습관으로
2. **그 뇌를 깨우는 게 — 불편**
   막혀야 멈춰 서서 생각하고 — 못 끝낸 일엔 다시 손이 갑니다
3. **그래서 불편은 — 참을 게 아니라 적을 것**
   고장이 아니라 — 고칠 게 있다는 신호

게으른 뇌를 움직이는 것 — 그래서 불편은 기회입니다

출처 뇌 2% · 20% — 레이클 · 거스너드 2002(미국 국립과학원회보) · 습관 — 웬디 우드 외 2002(성격 · 사회심리학회지 · 대학생 일기 35% · 43%) · 막혀야 생각 — 존 듀이 『How We Think』(1910) 11쪽 · 다시 손이 감 — 기벨리니 · 마이어 2025(연구 21편 합친 분석)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일부러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냐면 — 아닙니다

좋은 건 비슷하고 — 불편은 사람마다 다르다

좋다고 여기는 것





사람마다 — 비슷한 게 많다

불편한 것



사람마다 — 정말 다르다

그래서 불편 메모 — 대중적인 생각보다, 나한테 집중된 세상을 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불편에 집중하면 — 도움이 될까? · 연구 하나

일에 불만이 큰 사람이 — 가장 창의적이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결과예요 — 불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학술지 논문 · 2001 미국경영학회 학술지 · 44권 4호 · 682~696쪽

일에 대한 불만이 — 창의성으로 이어질 때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징 저우 · 제니퍼 조지 — 직장인 149명 조사

doi 10.5465/3069410

이 연구를 소개한 대학 기사



일에 불만이 큰 사람

단 — 두 가지가 함께일 때

1. 쉽게 떠날 수 없을 때
2. 동료 · 회사가 도와줄 때

쓸모 있는 피드백 · 새 시도 지원



가장 창의적

새롭고 쓸모 있는 생각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불편에 집중해서 — 풀어 보려고 하면?

풀 방법을 적어 두면 —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학술지 논문 · 2011 안 끝난 일이 있을 때 — 사람들 머릿속을 본 실험

안 끝난 일이 하나 있으면 → 다른 걸 할 때도 — 머리에 자꾸 끼어든다 → «언제 · 어떻게 할지» 한 줄 적었더니 → 끼어드는 생각이 — 줄었다

오래전부터 — 이런 말도

"불만은 — 진보의 첫째 조건"
토머스 에디슨 · 발명가

"만든 물건은 늘 — 안 되는 점 때문에 바뀐다"
헨리 페트로스키 · 공학자

"불만 많은 고객에게서 — 가장 많이 배운다"
빌 게이츠 · 경영자

그래서 오늘 — 불편에서 회사를 읽고, 내가 할 일을 찾습니다

출처 실험 — 마시캄포 · 바우마이스터 2011(성격 · 사회심리학회지 · 대학생) · 에디슨 — 케터링 · 오스 『The New Necessity』(1932) 120쪽 · 페트로스키 『The Evolution of Useful Things』(1992) 2장 · 게이츠 『Business @ the Speed of Thought』(1999)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도구를 하나 더 — 불편 메모

CT 메모 · 불편 메모 — 어떤 사이인가

	CT 메모 — 일상적인 관찰	불편 메모 — 그 안에서 내 관심 포인트
언제	**무슨 일이든** 좋든 나쁘든 — 겪었을 때	**불편할 때만** 신체적이든 · 감정적이든 · 정신적이든
적는 것	**몸의 반응** 몸이 느낀 그대로 · 감정은 약하게	**뭐가 불편했나 + 그래서?** 불편 그대로 → 끝에 결론 한 줄

둘 다 — 남들은 못 보는 노트 · 여기저기 말고 **한 곳에**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감정은 한마디면 된다더니 — 이번엔 적으라고요?

메모 셋 — 쉬운 것부터 한 단계씩

1단계 · 첫 시간

CT 메모

주인공 — 몸

감정은 한마디면 충분 — 몸이 한 것

15초 · 제일 쉬운 워밍업

2단계 · 오늘

불편 메모

주인공 — 불편

불편한 감정을 붙잡아 그대로

+『그래서?』 한 줄

3단계 · 마지막 시간

?

마지막 시간에

한 단계 더 —

손이 제일 많이 간다

쉬운 것부터 한 단계씩 — 그래서 노트도 따로 적습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어떻게 적느냐면 — CT 메모와 같은 틀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CT 메모 첫 시간	날짜	장소	상황	몸이 한 일	—
불편 메모 오늘	**날짜**	**장소**	**상황**	**뭐가 불편했나**	어떻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예 — 제 것	○월 ○일	성수 ○○ 향수 매장	좋아하는 향수 사러 갔는데	코가 아릴 정도로 향이 셌다	…

한 줄이면 됩니다 — 그 불편함을 그대로 · 결론은 있으면 한 줄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예 — 실제로 적은 것

제 불편 메모 —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편 메모 — 제 폰 메모 — 그대로

날짜 ◀ 언제
8/3(화)

시간 ◀ 언제
오후 12시 47분

장소 ◀ 어디서
집근처 카페

뭐가 불편했는지 ◀ 무엇을 · 어떻게

정보를 큐레이팅해주는 서비스같은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정보에 목마른데 이걸 모으는 것도 힘들고
사실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게 큰거지.
그걸 쉽고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없으니
그냥 정보에 대해 갈증만 나고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불편)이 든다.

결론 ◀ 그래서? #자기관찰, #비즈니스 #글감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여러분도 — 한 줄

지금 해 보기 — 내 불편 한 줄

1



폰 메모장 — 한 곳

불편 메모 자리 하나

2



이번 주 불편했던 순간 하나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3



한 줄이면 끝 — 그래서?까지

어떻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0개도 정상 — 적은 한 줄은 오늘 두 번 더 씁니다 · 풀기 · 진로 후보 고르기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켜는 두 번째 칸 — 불편 메모 · 두 가지



물음 둘 — 어느 불편에나

물음 둘 — 「왜?」·「나라면?」

오늘 — 제가 찾은 것 · 만든 것부터

불편 ① 밖에서 오는 불편



「왜 이렇게 됐을까?」

→ 회사(이유)가 보인다

예: 배달비는 왜 오를까

불편 ② 내가 느끼는 불편



「나라면 어떻게 풀까?」

→ 할 일이 보인다

예: 매번 손으로 하던 정리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연구 하나 — 1998년 · 직장인 441명

같은 불만도 —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연구가 센 건 — 「이렇게 고치면」까지 가는 말뿐입니다

학술지 논문 · 1998 미국심리학회 학술지 · 르파인 · 반 다인

왜 — 무엇이 «고치자»는 말을 하게 하나

직장인 441명 · 95개 팀
6개월 뒤 — 같은 팀 동료가 매김

같은 불만 하나

그냥 불평 세지 않음

「그냥 이건 싫은데」

— 여기서 멈춥니다

예) 「주문이 몰리면 정신이 없어요」

나아지게 하려는 말 이것만 셌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 까지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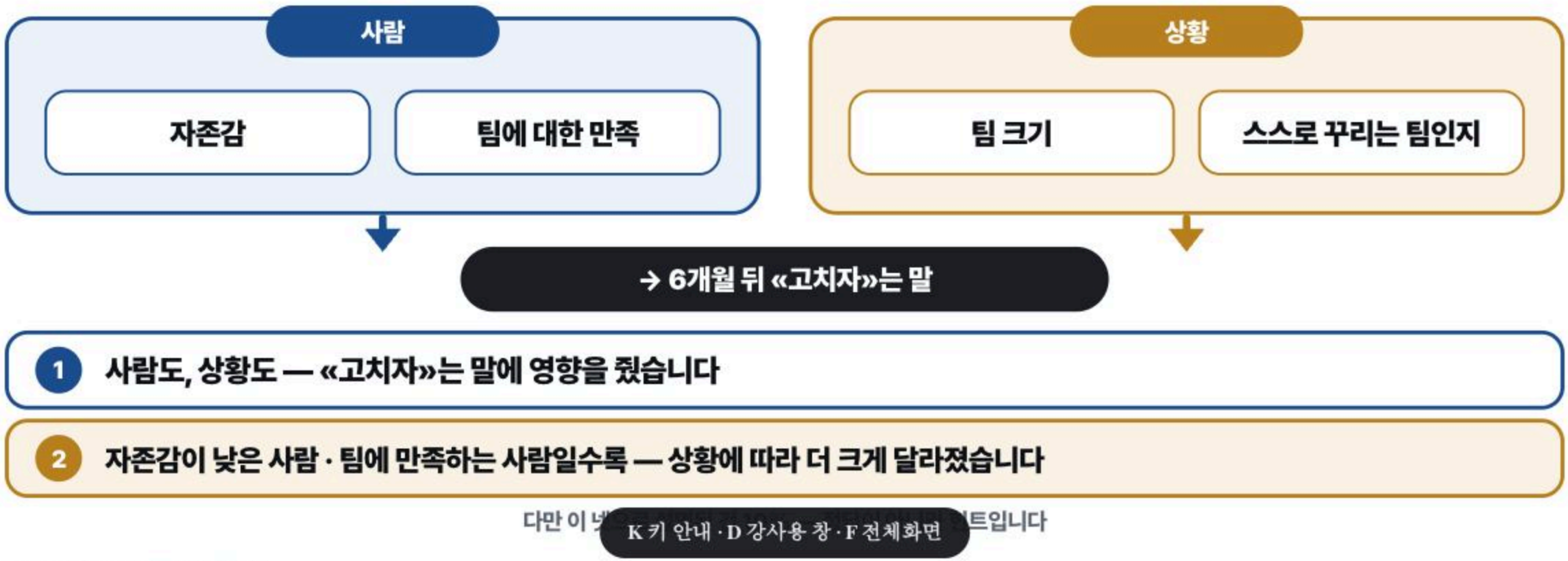
예) 「픽업 줄을 따로 두면 — 덜 엉킬 거예요」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같은 연구 — 결론

결론 — 사람도, 상황도 영향을 줬습니다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만 이 넷 트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이 연구가 — 오늘 불편 메모와 이어지는 곳

그래서 불편 메모는 — 「고치자」까지 적습니다

연구에서	오늘 불편 메모에서
1 「그냥 불평」은 빼고 — 「고치자」는 말만 셌다	→ 「그냥 싫다」에서 멈추지 않고 — 「그래서? · 나라면 이렇게」까지 적는다
2 「고치자」는 말 — 사람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 그러니 연습할 수 있다 — 아무도 안 보는 메모에 먼저 적어 본다
3 「고치자」는 말 — 일이 나아지게 하려는 말	→ 적어 둔 한 줄이 — 면접에서 할 말 · 진로 후보의 재료

그냥 싫다 → 그래서? → 나라면 이렇게 — 오늘 적는 한 줄이 바로 「고치자」는 말입니다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세션 1 · 파트 1

불편 메모 정리 — 방금 본 것

불편이란	내가 느끼는 것
적는 법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그래서?
물음 둘	왜 이렇게 됐을까? · 나라면 어떻게 풀까?

그래서 — 제가 찾은 것 · 만든 것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세션 1 파트 2

불편 ① 밖에서 오는 불편 — 거꾸로 읽기(역설계)

우리 눈엔 — 결과만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결정으로, 거꾸로 읽습니다

불편 ①
밖에서 오는 불편

불편 ②
내가 느끼는 불편

K 키 안내 · D 강사용 창 · F 전체화면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밖은 넓습니다 — 어디까지가 밖인가

밖에서 오는 불편 — 세계 · 산업에서 옵니다

오늘 주로 뜯는 칸 — 산업, 기업과 업계가 정한 것



어느 칸이든 — **정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 그 결정이 나한테 옵니다

밖에서 오는 불편이란 —

내가 고른 게 아닌데 — 나한테 오는 불편



예를 들면 —

매일 겪는 불편 — 다 누가 정한 것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 · 퀄리티가 줄었다

→ 왜 이렇게 됐을까?

서비스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 왜 이렇게 됐을까?

가격

쓰던 앱 구독료가
또 올랐다

→ 왜 이렇게 됐을까?

규칙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래요

→ 왜 이렇게 됐을까?

다 — 누군가 정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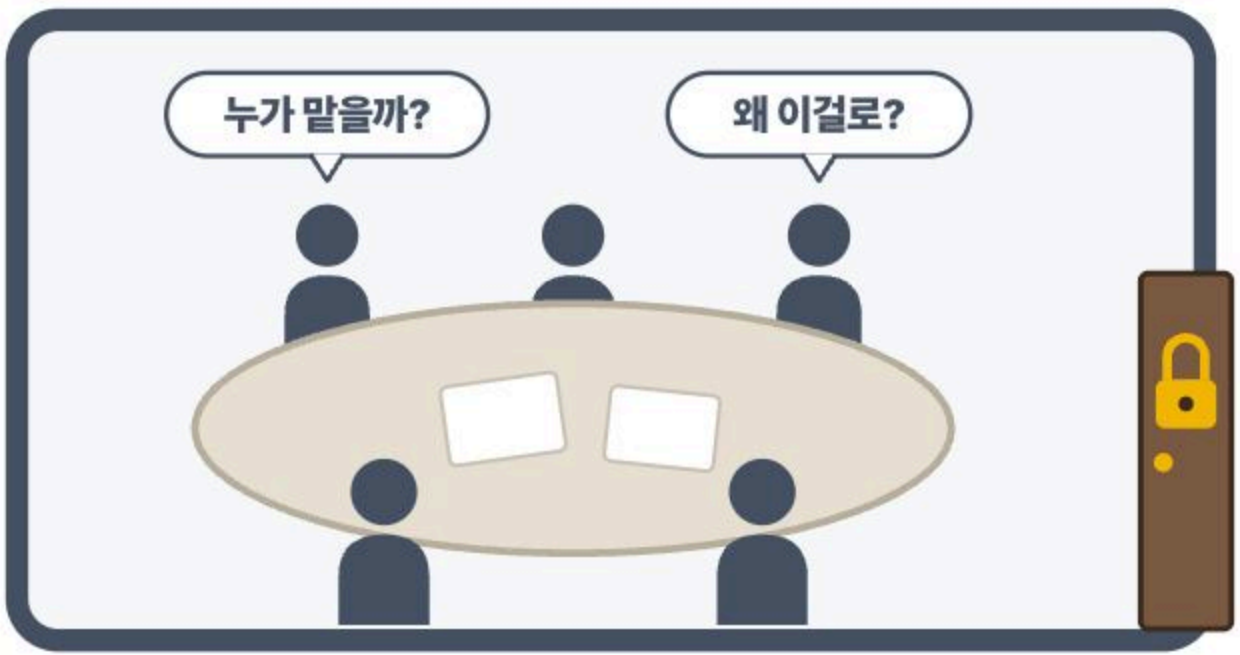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회의실 문이 — 닫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 밖에 나온 결과로 안에서 정한 것을 되짚습니다

회사 안 — 회의실



회사 밖 — 우리

우리한테 오는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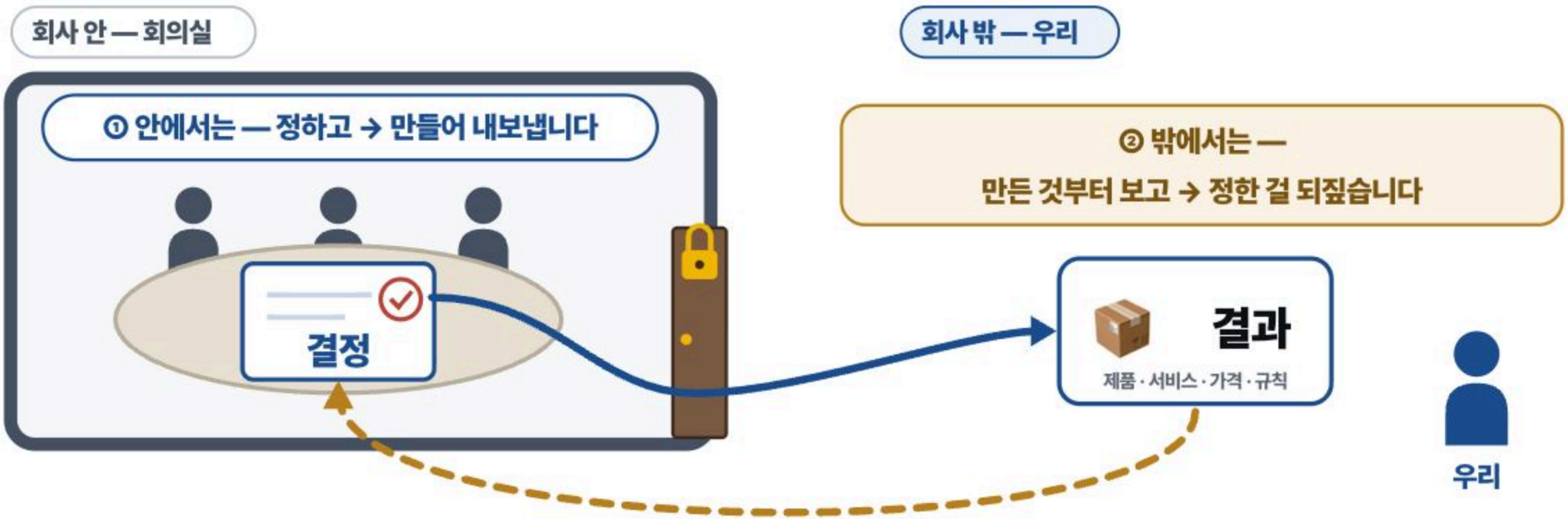
다 정해진 결과뿐

- 제품
- 서비스
- 가격
- 규칙

안에서 — 뭘 정했을까?

안에서와 밖에서 —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 거꾸로 갑니다. 결과에서 결정으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거꾸로 읽기 — 사실 늘 하시는 일입니다

떡볶이 먹어 보고 — "고추장에 물엿 넣었네"

회사도 같습니다 — 우리한테 오는 건 완성된 것뿐입니다

안 본 것 — 레시피

🌶️ 고추장

🍯 물엿

떡 · 어묵 · 파 …

먹어 보고 — 거꾸로

"맵다" ←

"달다" ←

😋 음… 맵고, 달달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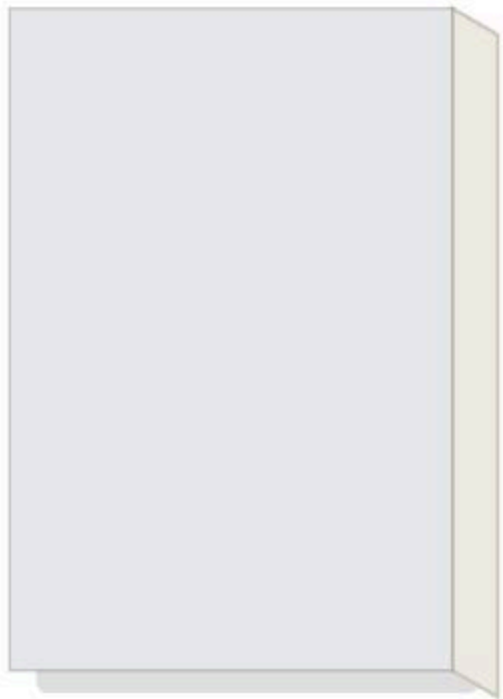
먹어 본 것 — 떡볶이 한 접시

레시피는 안 봤는데 — **맛을 보고 거꾸로 알아낸 것**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역설계 —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걸 — 관심 회사 · 관심 진로에 대 보는 것뿐입니다



역설계

역 = 거꾸로

설계 = 만들 때 정한 것

↓

완성된 것을 보고 — 만든 사람이 정한 것을 되짚는 일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 사회심리학자 론 프리드먼의 책

『역설계』 론 프리드먼 지음 · 이수경 옮김 · 어크로스 2022 · 원제 Decoding Greatness(2021)

책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뜯어 놓은 연구실



남의 제품을 뜯어 — 원가 · 공정을 뽑는 게 «업»인 회사도 있습니다

거꾸로 읽기 — 사실 주변에 흔합니다

자연도, 물건도 — 뜯어보고 따라 만든 것

회사도 똑같이 — 겉에 나온 것에서 거꾸로 읽습니다

자연을 뜯어보고 — 생체 모방



물총새 부리

↓

고속열차 앞모양

물에 들어갈 때 물이 안 튄다

→ 터널 「쾅」 소리를 줄이려고



우엉 열매 가시

↓

찍찍이

옷에 붙은 가시를 현미경으로 —

작은 갈고리가 보였다



혹등고래 지느러미

↓

선풍기 날개

울퉁불퉁한 돌기를 —

날개에 그대로

물건을 뜯어보고



새 스마트폰

↓

나온 날 바로 분해

부품이 뭔지 · 원가가 얼마인지

— 따지는 게 일인 회사들

(아까 떡볶이도 — 같은 일)

출처 물총새 부리 — 1997년 일본 고속열차(500계) 앞모양 · 설계 기술자 나카쓰 에이지 · 찍찍이 — 1941년 아이디어 · 1951년 스위스 특허 출원 · 혹등고래 지느러미 — 생물학자 프랭크 피시 연구 · 유럽특허청 2018 발명가상 후보 · 대형 선풍기 날개 · 스마트폰 — 분해 분석 업체들의 출시일 분해 · 부품 원가 보고서

이걸 왜 배우냐면요

회사를 아는 길은 — 두 가지입니다

밖에서 읽어 본 사람은 — 지원서가 달라집니다

① 들어가서 알기



- 인턴
- 입사
- 거기 다니는 지인

지금 당장은 — 대부분 어렵습니다

② 밖에서 읽기

오늘 배우는 것

- 매장
- 앱
- 채용공고
- 기사

밖에 나와 있는 것 —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 할 수 있습니다

세션 1 · 파트 2

역설계 정리 — 방금 본 것

결정은	회의실 안에서 — 우리 눈엔 안 보인다
우리가 받는 건	정해진 결과 — 제품 · 서비스 · 가격 · 규칙
그래서 하는 일	완성된 것에서 **거꾸로** 결정을 알아낸다

그게 역설계 — 오늘 강의 시간 동안 하는 일입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그럼 과자 양이 줄어든 건 — 실수였을까요?

고객이 느끼는 불편 = 맞바꿈의 흔적

그럼 물을 건 하나 — "뭘 얻으려고 했을까?"

얻은 것



값은 그대로

값을 안 올리고도 — 손님이 계속 산다

맞바꿈

버린 것

양

손님 모두 — 같은 돈에 덜 받는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 뭔가를 얻으려고, 다른 걸 버린 겁니다

아까 본 불편 넷으로 — 거꾸로 읽기

이 불편으로 — 거꾸로 읽어 봅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 · 퀄리티가 줄었다

→ 왜 이렇게 됐을까?

서비스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 왜 이렇게 됐을까?

가격

쓰던 앱 구독료가
또 올랐다

→ 왜 이렇게 됐을까?

규칙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래요

→ 왜 이렇게 됐을까?

다 — 누군가 정한 결과입니다

그럼 뭘 얻으려 했는지 —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제가 회사를 볼 때 — 묻는 것 넷

답이 아니라 물음 — 밖에서 결과를 볼 때 묻는 넷입니다

1 🎯 누구를 위해

누가 편해지고 —
누가 불편해졌나

이렇게 봅니다

누구냐 말고 — 어떤 상황이냐
「기계가 낯선 손님」처럼

2 ⚖️ 무엇을 포기

뭘 얻으려고 —
뭘 버렸나

이렇게 봅니다

없어진 것 하나 —
그리고 대신 따라온 것

3 💰 돈과 공간

돈 · 공간 · 사람을 —
어디에 몰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낀 돈은 어디로 갔나 —
값은 내려갔나

4 🔄 어디서 돌아오나

어떤 길로 —
돈이 되어(혹은 가치가) 돌아오나

이렇게 봅니다

공짜 · 쿠폰은 왜 줄까 —
돈 내는 쪽이 따로 있나

> 뭐 하나를 만들려면 꼭 정하는 넷

출처 「역설계」는 론 프리드먼 『역설계』(어크로스 2022)에서 빌린 말 — 이 물음 넷은 책에 없고, 제가 회사를 볼 때 쓰는 방식

물음 넷 — 제품에 대 보면

과자 값은 그대로인데 — 양이 줄었다

제품

과자 값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

	😊얻은 쪽	😠잃은 쪽
	→ 회사 이윤 — 재료값이 올라도 값은 그대로 받으려고	
1 🎯누구를 위해	편해진 쪽 — 정한 쪽 **회사** 값을 안 올리고도 — 이윤을 지킨다	불편해진 쪽 — 받는 쪽 **손님 모두** 같은 돈 내고 — 덜 받는다
2 ⚖️무엇을 포기	따라온 것 그대로인 가격표	없어진 것 양
3 💰돈 · 공간	덜 넣어 아낀 재료값 — 값을 올리는 대신 · 봉지는 그대로	
4 🔁어디서 돌아오나	사던 손님이 같은 값에 — 계속 산다	

📚근거 — 2023년 조사 — 용량 줄인 상품 37개 · 2024년 8월부터 용량을 줄이면 석 달 넘게 알려야 한다(공정위 · 한국소비자원)

넷 다 — 밖에서 짐작한 것 · 맞는지는 가서 확인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물음 넷 — 서비스에 대 보면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서비스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얻은 쪽	😠잃은 쪽
	→ 가게 이윤 — 들인 이유 1위가 인건비 절감	
1 🎯누구를 위해	편해진 쪽 — 정한 쪽 가게 주문받던 사람 몫 — 인건비를 아낀다	불편해진 쪽 — 받는 쪽 손님 — 주문을 떠안았다 65세 이상은 열에 여섯이 「어렵다」
2 ⚖️무엇을 포기	따라온 것 말 안 거는 자리	없어진 것 주문받던 직원 자리
3 💰돈 · 공간	기계로 아낀 인건비 — 그런데 값은 그대로	
4 🔁어디서 돌아오나	쿠폰 — 자기 앱으로 부르면 수수료가 없고 기록이 남는다	

📚근거 — 도입 이유 1위 인건비 절감(소상공인 402곳 · 중소기업중앙회 2024) · 65세 이상 64.2% 「키오스크 주문 어렵다」(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넷 다 — 밖에서 짐작한 것 · 맞는지는 가서 확인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물음 넷 — 가격에 대 보면

쓰던 앱 구독료가 — 또 올랐다

가격

쓰던 앱 구독료가
또 올랐다

	😊얻은 쪽	😠잃은 쪽
	→ 회사 이윤 — 남는 사람이 더 내게	
1 🎯누구를 위해	편해진 쪽 — 정한 쪽 **회사** 쓰던 사람에게 — 더 받는다	불편해진 쪽 — 받는 쪽 **쓰던 사람 모두** 더 내거나 — 떠나야 한다
2 ⚖️무엇을 포기	따라온 것 남는 사람이 내는 더 큰 값	없어진 것 떠날 몇 사람
3 💰돈 · 공간	새 기능 · 묶음 — 값 올릴 이유를 화면에 만든다	
4 🔁어디서 돌아오나	안 떠나는 사람 — 자료가 쌓일수록 더 못 떠난다	

📚근거 — 이용자 68% 「구독료가 비싸다」 — 그래도 올렸다(소비자 1,200명 · 한국소비자원 · 2024년 10월)

넷 다 — 밖에서 짐작한 것 · 맞는지는 가서 확인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물음 넷 — 규칙에 대 보면

투명 페트병은 — 따로 버리래요

규칙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래요

		😊얻은 쪽	😠잃은 쪽
		→ 이건 회사가 아니라 나라 — 깨끗한 페트를 다시 쓰려고	
1	🎯누구를 위해	편해진 쪽 — 정한 쪽 **나라 · 재활용 업체** 깨끗한 원료 — 옷까지 만든다	불편해진 쪽 — 받는 쪽 **우리 모두** 헹구고 · 라벨 떼고 · 따로 버린다
2	⚖️무엇을 포기	따라온 것 **깨끗한 재료**	없어진 것 **한데 섞어 버리던 편함**
3	💰돈 · 공간	고르는 일을 집으로 — 헹구기 · 라벨 떼기 · 따로 넣기	
4	🔁어디서 돌아오나	버려질 게 깨끗한 재료로 — 돈(수입 대신)도 · 가치(환경)도	

📚근거 —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 따로 배출 의무 · 2021년 12월 단독주택까지(환경부 지침) — 좋은 재생원료 · 수입 대신

넷 다 — 밖에서 짐작한 것 · 맞는지는 가서 확인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거꾸로 읽은 걸 적을 때 — 둘로 나눠서

확인한 것 · 확인할 것 — 나눠서 적습니다

짐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 확인할 것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한 걸음 더 — 뿌리까지 묻기

과자 양은 왜 줄었을까 — 뿌리까지 따라가면

현상

과자 —

값은 그대로 · 양이 줄었다

↓ 뿌리까지

이렇게 물으면 — 답이 이런 꼴로 옵니다

확인한 것 · 확인할 것

1	바깥 사정	원료값 · 환율 · 물류비가 올랐다	확인할 것
2	회사 안 사정	값을 올리면 덜 팔린다 — 값은 두고 양을 줄였다	확인할 것
3	업계에서 부르는 말	「슈링크플레이션」 — 값은 그대로, 양만 줄이는 것	확인한 것
4	바빠지는 직무	원가 관리 · 구매 · 상품 기획	확인할 것
5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	「슈링크플레이션, 아세요?」 · 「물가가 오르는 지금, 과자를 더 팔 방법은?」	

이렇게 묻는 명령어 —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 과자 자리에 내 불편 한 줄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만 — 뜯을 수 있는 불편은 따로 있습니다

구조냐 · 우연이냐

구조만 뜯을 수 있습니다 — 우연은 그날 운

✔ 뜯을 수 있다

구조

매번 같은 자리에서 —
누가 정해서 생긴 것

- 키오스크 화면 순서
- 과자 용량
- 좌석 배치

vs

× 뜯을 수 없다

우연

그날만 —
운이나 그 사람 탓

- 사람이 몰렸다
- 비가 왔다
- 직원이 불친절했다

뜯을 건 — 매번 같은 자리에서 생기는 불편 · 그날 운은 넘깁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그럼 이걸 — 어떻게 들고 다니나

오늘 만든 자 — 회사를 재는 물음 넷

외울 건 사례가 아니라 — 이 물음 넷입니다

첫 시간 — 나와 맞나 재는 자



한 줄 정의

나는 __할 때 살아있다

오늘 — 회사를 재는 자 · 물음 넷



① 누구를 위해

누구 좋으라고 할 건지



② 무엇을 포기

대신 뭘 버릴 건지



③ 돈 · 공간

뭘 들여서 만들 건지



④ 어디서 돌아오나

어떻게 되돌려받을 건지

오늘 대본 것

 과자

 키오스크

 구독료

 페트병

 세션 3에서 — 관심 회사에 댑니다

첫 시간에 "자가 없으면 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역설계의 한계 — 의사결정 단계가 여러 겹

내 손에 닿기까지 — 부서가 여러 겹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계로 전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1



결정하는 부서

경영진 · 기획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지

2



만드는 부서

디자인 · 개발 · 생산

결정을 물건 · 서비스로

3



파는 부서

마케팅 · 영업 · 유통

내 앞까지 가져다 놓는다



우리가 본 건

맨 끝 하나

사이의 판단은 안 보인다

부서마다 **그 일만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 밖에서 본 건 그 **결과** 하나입니다

세션 1 · 파트 2

밖에서 오는 불편 정리 — 방금 본 것

물음	왜 이렇게 됐을까? — 회사(이유)가 보인다
읽는 법	거꾸로 읽기 — 결과에서 결정으로 · 물음 넷
적는 법	확인한 것 · 확인할 것 — 나눠서
한계	부서마다 판단이 있다 — 전부는 못 안다

짐작은 적어 두고 — 맞는지는 가서 확인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세션 2

불편 ② 내가 느끼는 불편 — 거꾸로 풀어내기(재설계)

네 가지 재료 — 하나씩 깊이 · 넓혀 읽기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여덟

불편 ①
밖에서 오는 불편

불편 ②
내가 느끼는 불편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거꾸로 풀어내기 — 어디까지 풀어 내보내나

내 불편을 — 나에서 세계까지 풀어 내보냅니다

오늘 주로 푸는 칸 — 개인, 내 불편부터

아까 본 모래시계 —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1 세계
판이 바뀌었다

2 산업
회사가 생존 모드다

3 개인
지도가 바뀌었다

2 불편 메모
내가 느끼는 불편 한 줄

세계 — 세상에 내보낸다
크게는 — 많은 사람이 쓰게

산업 — 회사 · 업계에 쓸모 있게
진로 후보 · 면접 한 문장으로 이어진다

개인 — 나부터 덜 불편하게
오늘 주로 푸는 칸

시작 — 내가 느끼는 불편
「나라면 어떻게 풀까?」

이번엔 반대 방향 — 내 불편에서 시작해 · 내가 풀어서 내보냅니다

그 전에 — 아까 그 불편 넷

같은 불편도 — 네 가지 재료가 됩니다

인사이트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

↓

값 대신 양을 바꾸는 회사의 셈법이 보인다

→ 회사 · 경제를 읽는 눈

자기 관찰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

뭐가 답답했지? — 내가 못 참는 것을 안다

→ 나를 아는 재료

글감

쓰던 앱 구독료가
또 올랐다

↓

그 회사는 왜 올렸을까 — 이야기 한 편이 된다

→ 자소서 · 면접 소재

흥미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래요

↓

따로 모으면 어디로 갈까?

→ 궁금해서 찾아보는 재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도 — 남들과 다른 자소서 · 면접 · 포트폴리오 소재 · 세상을 보는 눈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네 가지 재료 — 하나씩 깊이 · 1 / 4

과자 양이 줄었다 — 회사의 셈법이 보인다

파고들면 — 세상 · 산업 · 진로가 더 깊이 보입니다

인사이트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

네 가지 재료 — 1 / 4

아까 그 불편

파 보는 물음

1. 값을 안 올리고 — 왜 양을 줄였을까?
2. 회사가 지키려던 건 뭘까? — 값 · 손님 · 이익
3. 다른 회사들도 그랬을까?

나오는 것
원가가 오를 때 — 회사가 버티는 셈법

진로 · 취업에 쓰면
→ 지원할 회사가 위기를 넘는 방식 — 흔한 방식인가, 새로운 방식인가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복사

「[관심 회사]는 원가가 오르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 —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알려 줘.
① 흔한 방식(양 · 퀄리티 줄이기)인지, 새로운 방식인지
② 자기 살 깎아 먹기(자산 처분 · 공장 가동 줄이기)로 버티는지, 전혀 새로운 방법을 찾는지
확인된 사실과 짐작은 나눠서, 쉬운 말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네 가지 재료 — 하나씩 깊이 · 2 / 4

키오스크가 답답했다 — 못 참는 것이 보인다

자기 관찰

주문은 —
키오스크로만

네 가지 재료 — 2 / 4

아까 그 불편

파 보는 물음

1. 정확히 어느 순간 답답했지?
2. 그때 나는 뭘 바랐지? — 빨리 · 사람 · 순서가 보이게
3. 비슷하게 답답했던 적이 또 있나?

나오는 것
내가 되풀이해서 못 참는 것 — 강점 · 약점 후보

진로 · 취업에 쓰면
→ 맞는 일 · 안 맞는 일을 고르는 기준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복사

「내 불편 메모들이야: [메모 붙여 넣기]. 내가 되풀이해서 못 참는 것을 묶어 줘 —
일이나 진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강점이 될 만한 것 하나, 조심할 것 하나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네 가지 재료 — 하나씩 깊이 · 3 / 4

구독료가 또 올랐다 — 이야기 한 편이 된다

글감

쓰던 앱 구독료가
또 올랐다

네 가지 재료 — 3 / 4

아까 그 불편

파 보는 물음

1. 내가 본 것 — 언제 · 얼마나 · 어떻게 알았나
2. 회사는 왜 올렸을까? — 짐작이면 짐작이라고
3. 나라면 어떻게 풀었을까?

나오는 것
본 것 → 회사의 이유 → 나라면 — 이야기 한 편

진로 · 취업에 쓰면
→ 자소서 · 면접 「요즘 관심 있게 본 회사 이야기」에 바로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복사

「[어떤 상황 — 내가 겪은 일 한 줄] — 이걸로 면접에서 1분 안에 말할 내 이야기 한 편을 써 줘.
처음엔 내가 본 것, 가운데엔 왜 그랬을지(짐작은 짐작이라고), 끝엔 나라면 이렇게 — 「나」를 주어로 다섯 줄.」

네 가지 재료 — 하나씩 깊이 · 4 / 4

페트병은 어디로 갈까 — 몰랐던 일이 보인다

흥미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래요

네 가지 재료 — 4 / 4

아까 그 불편

파 보는 물음

1. 따로 모으면 — 어디로 가서 뭐가 될까?
2. 그 사이에서 누가 일하지?
3. 그걸로 돈을 버는 곳은 어디지?

↓

나오는 것
몰랐던 산업 · 몰랐던 일 — 궁금증이 관심 분야로

진로 · 취업에 쓰면
→ 진로 후보가 넓어진다 — 처음 듣는 직무 · 산업

💬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 📋 복사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면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는지 쉬운 말로 알려 줘.
이 흐름에서 일하는 직업 셋과, 더 찾아볼 검색어 셋도.」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그리고 — 하나를 골라 넓혀 보면

넓혀 읽기 — 나 → 산업(회사) → 세계

불편 메모를 모으는 이유 — 진로 후보 · 면접에서 할 말

불편 하나 — 「주문은 키오스크로만」(자기 관찰)

CT 메모

순서가 안 보여 답답했다

나는 «순서가 보이게 정리하는 일»에 손이 간다?

불편 메모

화면으로만 주문받으면

화면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주문하지?

○○ 메모 (다음 시간에)

왜 키오스크가 늘었을까

인건비 — 조사로 본 것

속도? — 짐작 → 가서 확인

다음 시간에 더

진로 · 취업

이 흐름 위의 일

주문 화면 · 매장 운영 · 안내

→ 진로 후보 + 면접 한 문장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복사

「내 불편 하나: [불편]. 이걸 나 → 산업(회사) → 세계 순서로 한 줄씩 넓혀 줘.
짐작은 짐작이라고 — 그다음 이 흐름에서 할 수 있는 일 셋과, 면접에서 쓸 한 문장.」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여기까지 — 거꾸로 읽었습니다

역설계 다음은 — 재설계

여기까지 — 역설계

결과 → 거꾸로 → 이유

「왜 이렇게 됐을까?」

예 — 키오스크를 왜 늘렸을까

이제부터 — 재설계

읽은 이유 + 내 불편 → 다시 짓기

「나라면 어떻게 풀까?」

AI한테 말로 시키면 — 직접 만들 수 있다

AI로 풀어 볼 수 있는 게 — 무궁무진합니다 · 제가 풀어 본 것 여덟 →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1 / 8

지금 보고 계신 — 이 강의 화면

내가 느낀 불편 보기 편하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는 PPT를 쉽게 만들고 싶다

해결책 AI(바이브 코딩)한테 시켜서 만든다



1 · 2 · 3화 화면 — 말로 시켜 만든 것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2 / 8

오사카 · 도쿄 — 여행 매거진

내가 느낀 불편

여행지에서 매번 구글을 열어서
그때그때 내용 살펴보는 게 귀찮았다

↓

해결책

추천 명소 · 맛집 등을
매거진 · 안내 책자 · 게임 형태의
웹페이지로 만든다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3 / 8

홈페이지

내가 느낀 불편 홈페이지 제작 단가가 비싸고 피드백에 시간이 걸린다

해결책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직접 만든다



워크셀런트 — www.workcellent.co.kr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4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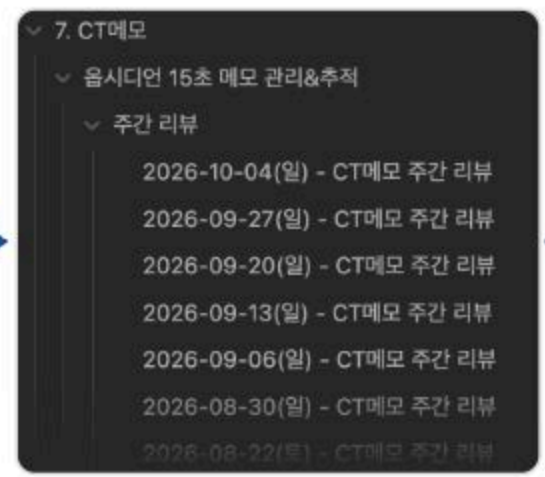
CT 메모 관리

내가 느낀 불편 CT 메모를 적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진다(다시 보기 · 내용 정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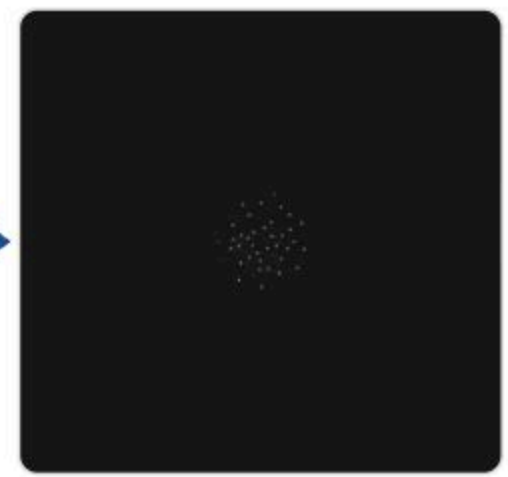
해결책 메모 앱과 AI를 연동해서 주마다 관리



① AI에게 — "한 주 정리했다, 확인해 줘라"



② 메모 앱 — 주마다 한 장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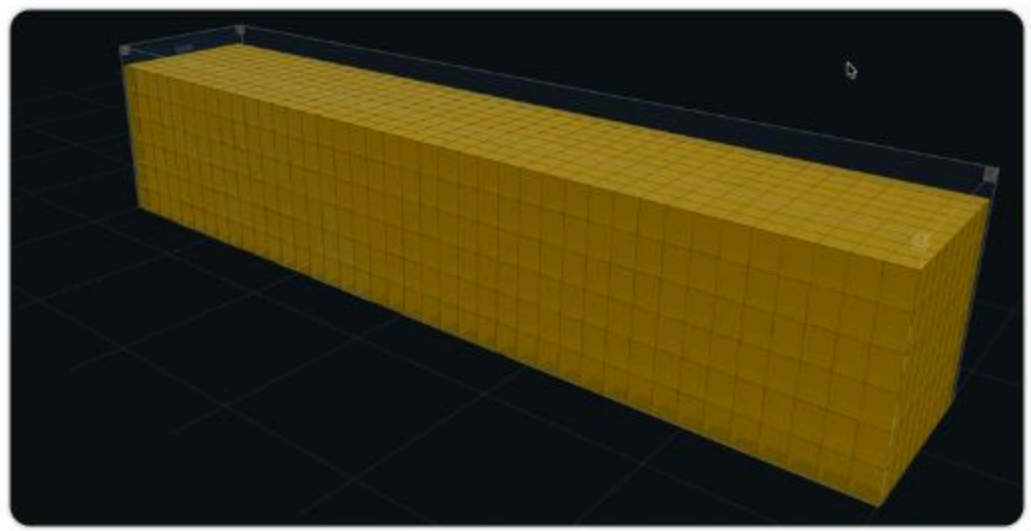
③ 쌓일수록 — 서로 이어진다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5 / 8

CBM 계산기 — 3D 짐 부피 계산기

내가 느낀 불편 견적 낼 때마다 컨테이너에 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야 했다

해결책 말로 시켜서 3D 짐 부피 계산기로 만든다(2017년엔 엑셀 함수로)



«자동 채우기» 한 번에

2,160개

40×30×25cm 상자 —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

적재율 84.9%

부피 64.8 / 76.35 m³

🔗 직접 열기 — toraclejin.github.io/cbm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6 / 8

상세페이지 — 500개를 모아 421개를 뜯어봤습니다

내가 느낀 불편 참고할 상세페이지를 — 몇백 개씩 하나하나 찾아봐야 했다

해결책 모으고 찍고 뜯는 건 AI에 — 500개를 모아 421개를 9가지 기준으로



AI가 일을 다 했다면 — 사람은 뭘 했을까?

AI가 한 일

프로그램 97개 · 500개 캡처 · 421개 분석

사람이 한 일

무엇을 볼지 정하고 · 이상한 결과를 잡고

쓸지 말지 판단했다

예) 「더보기」에 접혀 빠진 본문을 찾아 — 100개 중 53개 다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상세페이지 — 과정을 들여다보면

상세페이지 421개가 — 패턴이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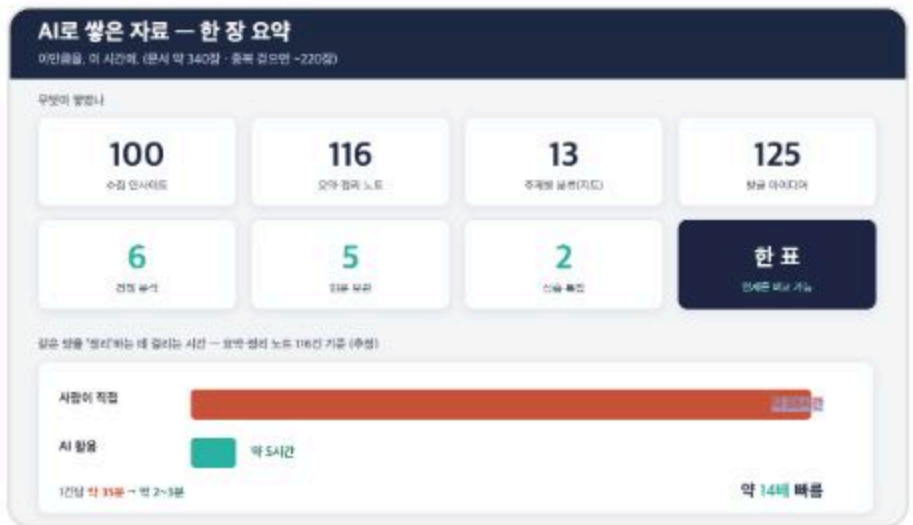
2026년 7월 실제 작업 기록 — 질문 → 500개 모으기 → 끝까지 찍기 → 한 장씩 해부 → 직접 세기 → 남는 것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7 / 8

유튜브 — 트렌드 읽기

내가 느낀 불편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상에서 — 내 흥미를 찾으려면 몇백 개를 봐야 했다

해결책 AI에 맡겨 모으고 정리 — 트렌드를 읽는다



유튜브 — 트렌드 읽기 · 문서 약 340장

사람이 직접 하면

약 68시간 (추정)

↓

5시간 안에 — 다 정리

유튜버가 되려는 게 아니라 — 흥미로운 걸 찾으려고

제가 불편해서 만든 것 — 8 / 8

세상읽기

내가 느낀 불편 기사를 찾아 읽을 시간이 없다

해결책 질문은 내가 정하고 — 찾고 정리하는 건 AI가



한 달(9/5 ~ 10/5) — 질문은 내가 · 정리는 AI가

질문 20개 → 카드 102장

AI 2시간 10분 (실측)

사람이면 약 50시간 (추정)

카드 = 판단을 바꾼 것만 — 뉴스 · 통계 · 기관 문서 · 논문

세상읽기 — 하루를 들여다보면

자료가 판단이 되기까지 — 하루 기록



10월 5일 하루 — 질문 하나 → 기사 제목 909개 → 판단 한 줄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여덟 다 — 똑같습니다

코딩은 몰랐지만 —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만들수록 — 생산성도, 일의 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강의 화면
전문적인 PPT를 쉽게 만들려고



여행 매거진
검색을 이리저리 하느니



홈페이지
맡기면 비싸고 느려서



CT 메모 관리
직접 정리하느니



CBM 계산기
견적마다 계산하느니



상세페이지
몇백 개를 찾느니



유튜브 — 트렌드 읽기
영상 몇백 개를 보느니



세상읽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코딩을 할 줄 몰라서 → AI에게 말로 시켜 만들었습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말로 시킨 그대로 — 하나

지난 시간 그 정색한 AI — 제가 한 말

코드 한 줄 안 썼습니다 — 말로만

제가 한 말

좀 더 재밌게 배치가 가능할까?
기본 표정으로 있다가
채팅이 들어가니 바로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답변은 친절하게

또 한 마디 — 한 번에 안 되면

다음에 클릭하면
표정이 바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



그래도 친절하게 답은 합니다 — 진로를 물어도 비슷합니다

말로 시킨 그대로 — 둘

지난 시간 그 자동차 · 360° — 제가 한 말

가속 · 브레이크 · 휙 돌리기 — 전부 말로

제가 한 말 — 360°

3d로 360도로 휙휙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건 힘드냐? 아니면
한바퀴 휙 돌리면 룰렛처럼 돌아가다가
서서히 멈추는건 안되냐?

또 한 마디 — 자동차

일방통행도 RPM 누르면 앞으로 가게끔
브레이크 누르면 멈추고

그랬더니 —

예전 — 일방통행



공채 시즌 · "이것만 하면 된다"
선배가 간 길 — 하나

지금 — 360°

↻ 휙 돌려 보세요



사방이 다 길 — 방향은 내가 고릅니다

말로 시킨 그대로 — 셋

아까 그 슬롯 — 제가 한 말

「쭈르르륵」 한 마디가 —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말

'문제'라는 단어 앞에
슬롯 머신처럼
버튼을 누르면
쭈르르륵 돌다가
멈추는 형태로
예시를 한 6개 만들어서
준비를 해줘라

→

그랬더니 —

'문제' 앞에는 —



붙이면 →

붙여 보면 —

- 사회적 문제
- 구조적 문제
- 개인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세대 간 문제
- 환경 문제

말로 시킨 그대로 — 넷

아까 그 모래시계 — 두 번 말했습니다

한 번에 안 돼도 — 또 말하면 됩니다

제가 한 말

파란색 선은 세계 · 산업에서
불편 메모까지 —
동그란 작은 원이 이동하면서
퐁당퐁당 점선은 깜빡깜빡
빛이 좀 나줘야 겠는데

이틀 뒤 — 또 한 마디

원 크기 1.5배 키워주고
속도는 3배 빠르게

그랬더니 —



제가 한 것처럼 — 여러분 불편 한 줄에도

지금 해 보기 — 이렇게 풀겠다 한 줄

1



아까 적은 불편 한 줄

그대로 두고 — 그 밑에

2



「이렇게 되면 덜 불편하겠다」

한 줄 — 말로 시킬 수 있게

3



만들 수 있을지 — 몰라도 됩니다

원하면 — AI에 그대로 말해 보기

💬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 복사

「내 불편 한 줄이야: [불편 한 줄].
이게 어떻게 되면 덜 불편할지 — '나라면 이렇게 풀겠다' 한 줄로 셋만 써 줘.
그중 AI한테 말로 시켜 직접 만들어 볼 만한 게 있으면 — 뭐라고 시키면 되는지도 한 줄로.」

예) 매번 손으로 하던 정리 → 말로 시켜서 한 번에 · 조금 뒤 진로 후보 고를 때 다시 씁니다

세션 2 만든 것 정리 — 방금 본 것

물음	나라면 어떻게 풀까?
만든 것 여덟	할 줄 몰라서 → AI에게 말로 시켰다
여러분도	이렇게 풀겠다 — 한 줄

쉬고 나서 — 여러분 차례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 10분

쉬고 오시면 — **여러분 차례** · 진로 후보 3~5개

세션 3

여러분 차례 — 진로 후보 3~5개

한 줄 = 무슨 일 · 어느 회사
「나라면?」으로 남기고

① 무슨 일 · 어느 회사

② 3~5개 남기기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① 무슨 일 · 어느 회사 — 내 문장이 회사에선

내 한 줄 정의 → 무슨 일

제 한 줄 정의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내가 직접 개입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 살아있다

AI한테 묻기 →

회사에서는 — 이렇게 불립니다

기획 | PD | 컨설턴트

= 무슨 일 · 일마다 회사도 같이 나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알지만 — 그게 회사에서 뭐라고 불리는지를 모를 뿐

① 무슨 일 · 어느 회사 — 그 일을 하는 곳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AI

"장난칩니까? 휴먼"

기획 — 이 일 하는 회사, 3곳씩

○○○ — 서비스 기획 · 중간 회사
△△ — 콘텐츠 기획 · 작은 회사
□□□ — 사업 기획 · 큰 회사

...다 처음 보는 데인데요?

이름 말고 — 하는 일을 보세요.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 그 일을 하는지만 봅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① 무슨 일 · 어느 회사 — 지금 해 보기

이제 여러분 것 — 한 단계씩 같이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복사

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문장에 맞는 일을 셋 알려 줘.
일마다 그 일을 하는 회사도 셋씩, 짧게.

1. **복사** — 단톡방에 방금 올린 명령어
2. **붙여넣기** — 평소 쓰는 AI 채팅창에 · 무료
3. **노란 부분만 바꾸기** — [___] 자리에 내 한 줄 정의
4. **보내기** — 일 셋 · 회사 셋 나오면 끝

막히면

- 한 줄 정의가 아직 없으면 →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 · 아니면 제 문장
- 답이 너무 길면 → 『짧게, 일 셋만』 한 번 더
- 회사가 다 처음 보는 곳이면 → 정상 — 하는 일만 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 아무도 안 봅니다 ·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② 3~5개 남기기 — 제 목록으로 먼저

다섯 줄이 — 진로 후보 셋으로

이름이 아니라 — 강점이나 불편이 닿는지로 남깁니다

💪제한 줄 정의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직접 개입해 더 낫게 만들 때

😠제 불편 메모 — 그리고 제 풀이
정보를 모으기 힘들다 — 그래서 모으고 정리하는 걸 AI로

일 · 회사	💪강점이 쓰이나	😠불편을 풀 수 있나	그래서
기획 · ○○○ 처음 보는 곳	◎ 꼬인 걸 읽고 직접 고치는 일	◎ 매일 자료를 모아 정리 — 내 풀이가 쓰인다	○ 남김
기획 · ◆◆◆ 이름 아는 곳	✕ 하는 일이 내 문장과 다르다	✕ 내 불편이 안 나온다	× 지움
컨설턴트 · ■■■ 처음 보는 곳	◎ 문제를 읽고 직접 개입하는 일	◎ 흩어진 자료를 모아 보여 준다	★ 남김
PD · ◇◇◇ 이름 아는 곳	✕ 하는 일이 내 문장과 다르다	✕ 내 불편이 안 나온다	× 지움
PD · ▽▽▽ 처음 보는 곳	– 아직 모르겠다	◎ 자료를 모아 콘텐츠로 — 내 풀이가 쓰인다	○ 남김

불편은 — 그 일의 하루에 내 불편이 나오나 · 거기서 내 풀이를 쓸 수 있나

② 3~5개 남기기 — 진로 방향도 같은 기준으로

진로는 방향 — 산업 · 분야 · 취미도 남깁니다

산업이든 · 분야든 · 취미든 — 같은 기준 둘로

방향	💪강점이 쓰이나	😠불편을 풀 수 있나	그래서
산업 · 수출 · 무역 해 본 쪽	◎ 서류 · 절차가 얽힌 현장 — 꼬인 걸 직접 푼다	◎ 견적마다 부피 계산 — CBM 계산기로 풀었다	○ 남김
분야 · 교육 지금 하는 일	◎ 흩어진 걸 — 틀로 묶어 보여 준다	◎ 전문적인 화면을 쉽게 — 이 강의 화면으로	○ 남김
취미 · 여행 좋아하는 쪽	– 아직 모르겠다	◎ 매번 검색이 귀찮았다 — 여행 매거진으로	○ 남김
둘 다 안 닿으면 이름이 멋있어도	× 안 쓰인다	× 안 나온다	× 지움

첫 시간 — 진로는 방향이고, 취업은 그 길 중 하나였죠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② 3~5개 남기기 — 취미 · 흥미가 애매하다면

일상에서 찾습니다 — 두 메모에 자꾸 나오는 쪽

CT 메모 — 일상적인 관찰

몸이 자꾸 반응한 장면

하루 한 줄 — 날짜 · 장소 · 몸이 한 일

불편 메모 — 그 안의 관심 포인트

자꾸 걸리는 것

왜 이렇지? · 나라면 이렇게 — 풀고 싶은 것

두 메모에 자꾸 나오는 쪽 = 내 방향

그래서 — **하루 한 줄** · 쌓여야 보입니다

② 3~5개 남기기 — 몇 개가 적당한가

개수보다 중요한 것

AI가 준 목록 — 그대로

3~5개 — 남깁니다

★ 한 곳 — 바로 거꾸로 읽어 봅니다

오늘은 —
한 곳만 정해져도 성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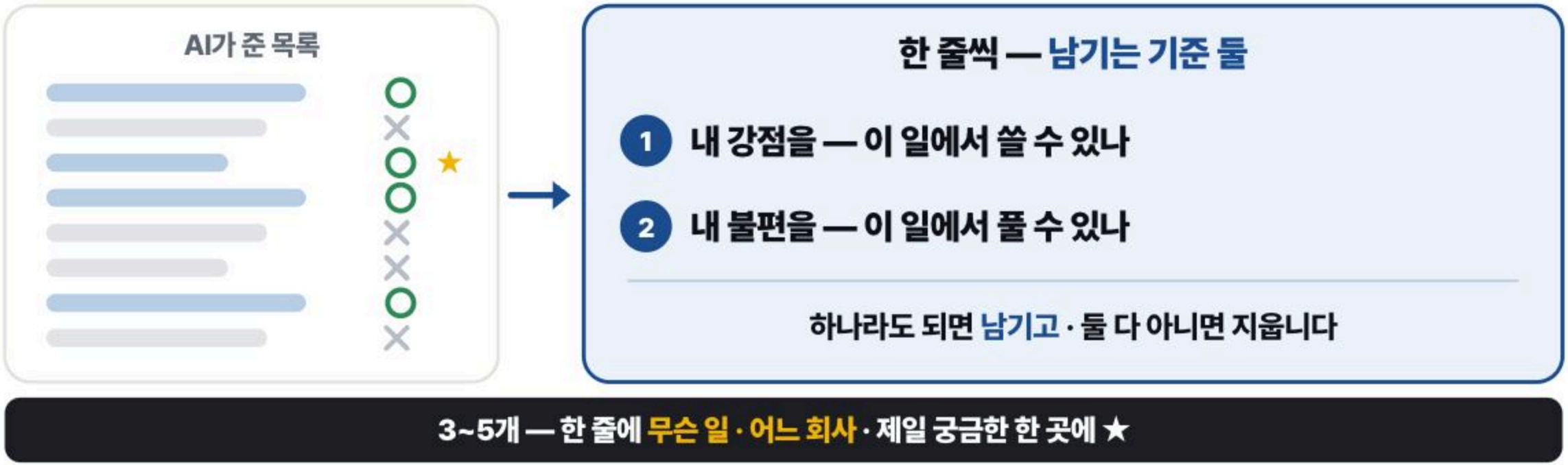
목록은 폰 메모장에
다시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한 곳을 깊이 보면 충분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② 3~5개 남기기 — 지금 해 보기

여러분 목록 — 기준 둘로 3~5개만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별표 친 곳에

왜 거꾸로 읽어 보나 — 이름만으론 안 보이는 것

세션 1의 거꾸로 읽기 — 이번엔 내 별표 회사에

이름 · 공고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
안 보입니다

물음 넷을 대 보면

- 🎯 누구를 위해
- ⚖️ 무엇을 포기
- 💰 돈과 공간
- 🔄 어디서 돌아오나

→ 그 회사가 뭘 고르고 · 뭘 버렸는지 보입니다

① 나랑 맞는지 | **② 면접에서 할 말** | **③ 확인할 것 — 아직 짐작인 것**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제 예시로 먼저

AI한테 — 이 불편을 네 갈래로 묻습니다

뒤의 둘은 —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제 예시 — AI한테 이렇게

○○앱 — 결제 단계가 너무 많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갈래로 짐작해 줘.

누구를 위해 · 무엇을 포기 · 돈과 공간 · 어디서 돌아오나.

확인된 것과 짐작은 나눠서, 짧게.

돌리면 — 네 갈래로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포기	돈과 공간	어디서 돌아오나
대체로 맞다	대체로 맞다	사람이 확인	사람이 확인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답은 그대로 옮기지 않기

나온 것을 — 확인한 것 · 확인할 것으로

확인 못 한 건 — 확인 못 했다고 적어 둡니다

확인한 것

내 눈으로 봤거나 —
홈페이지 · 기사에 있는 것

예) 결제 단계가 많다 — 직접 써 봄

그대로 씁니다

확인할 것

AI의 짐작 —
아직 아무도 확인 안 한 것

예) 상담 인력을 줄였을 것 — AI의 짐작

확인할 목록에 — 확인 전이라고 적어 둠

틀린 게 아니라 확인 전입니다 — 사람이 확인해야 내 근거가 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지금 해 보기

여러분 별표 회사 — 한 단계씩 같이

💬 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 — 📋 복사

[회사 이름] — [불편이나 궁금한 것 한 줄]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갈래로 짐작해 줘.
누구를 위해 · 무엇을 포기 · 돈과 공간 · 어디서 돌아오나.
확인된 것과 짐작은 나눠서, 짧게.

1. **복사** — 단톡방에 방금 올린 명령어
2. **붙여넣기** — 평소 쓰는 AI 채팅창에
3. **노란 부분만 바꾸기** — 회사 이름 · 불편이나 궁금한 것
4. **보내기** — 네 갈래가 나오면 — 일단 다 읽기

막히면

- 써 본 적 없는 회사면 → 궁금한 것 한 줄로
- 답이 너무 길면 → 『짧게』 한 번 더
- 그래도 막히면 → 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 아무도 안 봅니다 ·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다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한 것 하나 · 확인할 것 하나 — 딱 둘만

그게 — 회사를 읽은 첫 줄입니다

제 예시 — ○○앱 「결제 단계가 너무 많다」에서 AI가 준 네 갈래

① 누구를 위해 — 처음 쓰는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② 무엇을 포기 — 빠른 결제를 포기했다 확인한 것

③ 돈과 공간 — 상담 인력을 줄였을 것 확인할 것

④ 어디서 돌아오나 — 재구매에서 번다

확인한 것
— 딱 하나

확인할 것
— 딱 하나

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션 3 여러분 차례 정리 — 방금 한 것

① 무슨 일 · 어느 회사 — AI가 줍니다

② 3~5개 남기기 — 「나라면?」으로

③ 한 곳 거꾸로 읽기 — 「왜?」로

오늘 배운 물음 둘이 — 여기서 다 쓰였습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세션 4

2화 마무리 — 오늘 본 것 · 숙제

찾은 것 · 만든 것 · 남길 넷 → 다시 모래시계

① 오늘 본 것

② 기억할 말 셋

③ 숙제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본 것 — 찾은 것 · 만든 것

둘 다 — 포트폴리오 재료입니다

묶는 법은 — 다음 시간에

찾은 것 — 거꾸로 읽기(역설계)

회사를 재는 물음 넷

- 🎯 누구를 위해
- ⚖️ 무엇을 포기
- 💰 돈과 공간
- 🔄 어디서 돌아오나

만든 것 — 거꾸로 풀어내기(재설계)

내가 느낀 불편 → 풀어서 만든 것

전문적인 PPT를 쉽게 만들고 싶었다	→ 이 강의 화면
여행지에서 매번 검색이 귀찮았다	→ 여행 매거진
제작이 비싸고 오래 걸렸다	→ 홈페이지
메모가 쌓일수록 관리가 어려웠다	→ CT 메모 관리

— 그리고 넷 더

둘 다 — 포트폴리오 재료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본 것 — 메모장에 남길 넷

오늘 남길 것 — 이 넷이면 됩니다

1	불편 한 줄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그래서?
2	나라면 이렇게 풀겠다	한 줄 — 말로 시킬 수 있게
3	진로 후보 3~5개	무슨 일 · 어느 회사 — 그중 ★ 한 곳
4	★ 회사 — 거꾸로 읽은 것	확인한 것 하나 · 확인할 것 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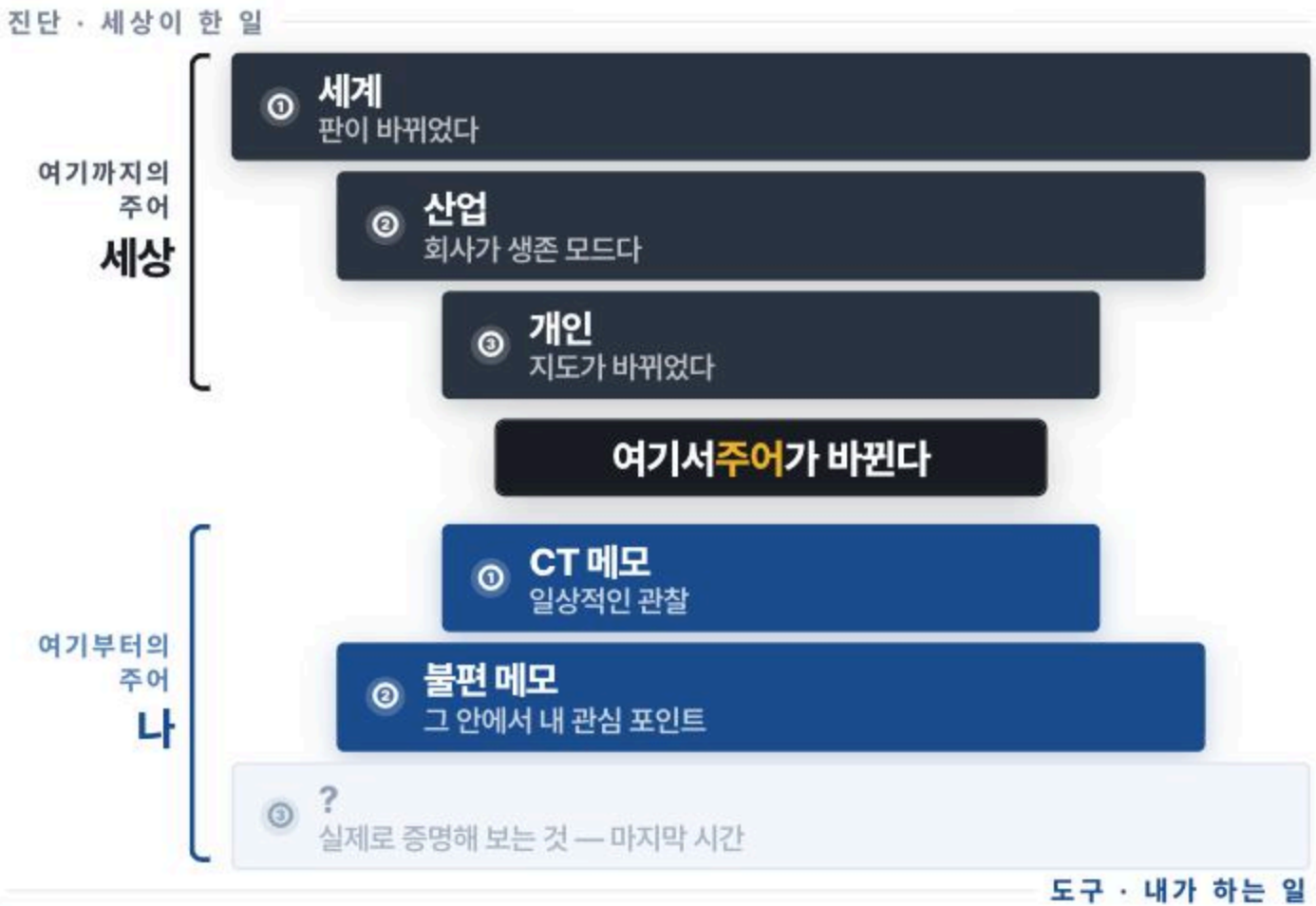
③의 ★ 한 곳은 —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 준비물

종이든 폰 메모장이든 · 아무도 안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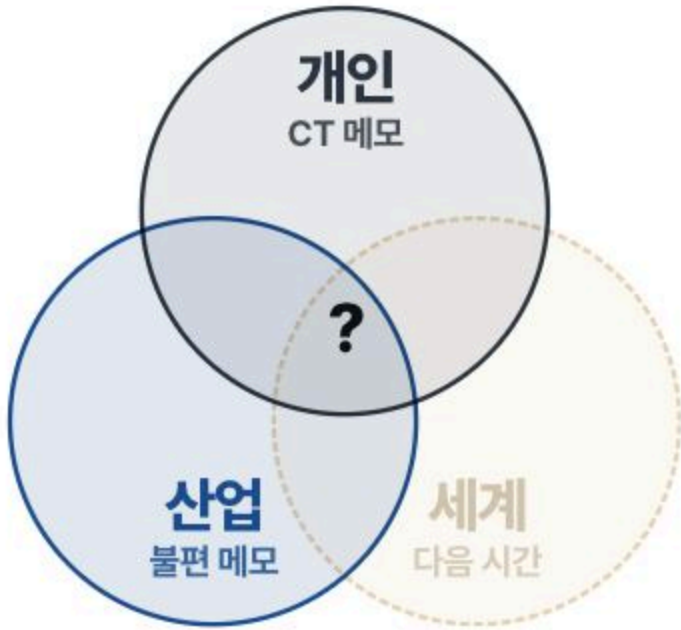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첫 시간 그림 — 다시 한 번

CT 메모 — 일상적인 관찰 · 불편 메모 — 그 안의 관심 포인트
마지막 칸 — 실제로 증명해 보는 것



첫 시간에 보여드린 원 세 개



- **개인** 내가 몰입하는 조건
- **산업** 그 일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
- **세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 다음 시간

첫 시간에 **개인**을 채웠고 — 오늘 **산업**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세 개를 겹칩니다

오늘 — 기억할 말 셋

1 고객이 느끼는 불편 =
맞바꿈의 흔적

😣 → ⚖️

뭘 얻으려고 —
뭘 버렸나

2 **불편 하나 — 물음 둘**

왜 이렇게 됐을까?
→ 🏢회사가 보인다

나라면 어떻게 풀까?
→ 🛠️할 일이 보인다

3 **사례가 바뀌어도 — 물음 넷**

🎯 누구를 위해	⚖️ 무엇을 포기
💰 돈 · 공간	🔁 어디서 돌아오나

과자 · 키오스크 · 구독료 · 페트병 — 다 같은 넷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 이런 분께

이런 분께 —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로 —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

강점 · 불편이 닿는 곳으로

진로 후보 3~5개 · 그중 ★ 한 곳

다시 시작 — 이렇게

일을 쉬어도 —

불편은 매일 쌓입니다

불편 한 줄 → 「나라면?」 → 할 일

경험 — 이렇게

해 온 일에서 겪은 불편 —

풀어 보면 다음 일의 재료

예) 견적마다 계산하던 불편 → CBM 계산기

불편에서 할 일을 찾는 힘 — 흔히 «기획력»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함은 요구가 아니라 — 산출입니다

요구

먼저 해내라는 것

~~"꾸준해야 한다"~~

아니라



하루 한 줄

→



스무 줄

→

산출

쌓으면 나오는 것

꾸준함

자연히 늡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 남과 비교하지 말고 — **내 걸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두 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세요 —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1



관심 회사 하나

수시 공고 = 회사의 «지금» 결정

2



CT 메모 계속

하루 한 줄 이상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 명령어 셋: 네 갈래로 짐작 · 일과 회사 찾기 · 공고 읽기

공고는 — 회사가 찾는 사람을 적어 둔 글

채용공고는 — 뒤집어서 읽습니다

오른쪽이 진짜 요구입니다 — 왼쪽만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공고에 적힌 말		실제로 찾는 사람
"경력 3년 이상"	→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	프로젝트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본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	→	설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유관 부서 협업"	→	말귀 못 알아먹는 거 잘 참는 사람
"멀티태스킹"	→	일 쏟아져도 잘 쳐내는 사람

자소서에서 물을 것 — "내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왜 아닌데도 맞나?"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오늘 배운 걸 들고 — 다음 시간

📣 3화 예고!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아직 못 한 것 하나 — "내가 왜 여기인가"

다음 시간 — 후보 한 곳을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 한 것

남의 순서를 알아냈다

다음 →

아직 못 한 것

내 요리로 만들기

순서를 안다고 — 내 요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오늘 한 건 — **남의 레시피를 읽어낸 것**입니다
> **다음 시간에는 — 내 요리를 만듭니다**

3화 예고 — 마지막 시간엔

마지막 시간엔 — 이 셋을 합니다

세션 1



답사

진로 후보 한 곳 — 맞는지 확인하러

직접 · 간접 · 나에게로

세션 2



서류

확인한 것을 — 포트폴리오 · 자소서로

「왜 여기인가」 — 두 문장

세션 3



고치는 법

안 됐을 때 — 고쳐도 됩니다

정하는 법에서 끝나지 않고 — 고치는 법까지

오늘 남긴 진로 후보 —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씁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음 시간 · 세션 1

답사 — 후보 한 곳을 확인하러

세션 1



답사

진로 후보 한 곳 — 확인하러

1

직접

갈 수 있으면 — 가서 본다

2

간접

못 가면 — 읽고 · 보고 · 묻는다

3

나에게로

모은 걸 — 나한테 비춰 본다

오늘 남긴 후보 한 곳 — 맞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음 시간 · 세션 2

서류 — 포트폴리오 · 자소서

세션 2



서류

포트폴리오 · 자소서

1

뽑는 쪽이 궁금한 셋

일을 아는가 · 해 봤는가 · 위험이 낮은가

2

경력 대신 — 서류

확인한 것으로 — 포트폴리오

3

「왜 여기인가」

두 문장이면 됩니다

회사가 뽑는 건 — 자기 일을 아는 사람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음 시간 · 세션 3

고치는 법 — 안 됐을 때

세션 3



고치는 법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틀린 게 아니라 — 정보가 늘어난 것

그러니 — 고쳐도 됩니다

정하는 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고치는 법까지

공개판 — 남의 그림 · 로고 · QR · 얼굴은 가렸습니다

다음 시간 — 준비물입니다

1



「한 줄 정의」 한 문장

그게 없으면 붙일 게 없습니다

2



회사 하나

아까 남긴 후보에서 하나

3



그 회사 공고 — 명령어 결과

이건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꼭 —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
나머지는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한 줄 — 계속 쌓아오세요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픈채팅 — 26.9 마포센터강의